

A Basic Study on Functional Clothing for Physically Handicapped Females

Lee, Hyun-Jeong* · Chung, Sham-Ho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Disabled persons in Korea are estimated at about 1,450,000, of whom about 470,000 persons, i.e., 38.6%, are females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0). In general, crippled persons do not include those with speech or sense disorders such as the blind, deaf, and dumb. Physically crippled persons account for 58.3% of the whole disabled people. In spite of that, little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costumes for disabled persons, who cannot help usually wearing ordinary ready-made clothes. Moreover, there are not enough basic data of disabled persons, which may be used to develop new products in the clothing industry and we don't have sufficient data of human body of such persons. In this situation, the current study was aimed to develop functional designs appropriate to disabled females. To do this, the author conducted, first of all, research into the data and current state of disabled females. It was intended to develop costumes that are most suitable to disabled persons and are equipped with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ducing scientific clothes for disabled females and developing relevant technologies.

This study had been continued for 12 months between August 2003 and July 2004. First, relevant literature was research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choose research subjects, and decide theoretical directions. Then, the author visited the places where disabled females are staying in order to understand and find out what problems they are

facing. Questionnaire surveys were executed on 219 disabled females living in Seoul City.

The results of abov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satisfaction of clothes are different from the handicap grade and when they have more difficulty they need more the skilled clothes. 2. The satisfaction of clothes and the size are reasonable difference that the satisfaction of ready made clothes are same as the lowest satisfaction. 3. The requirements of the ready made clothes are marked high point for the activity, conveniences and faculty. 4. The ready made clothes brand for the handicap person and the on-line site for the fashions are highly required.

The current study has meanings in the following aspect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concepts of fashion clothing and clothing industry for disabled persons' costumes. In other words, disabled persons' costumes will be commercialized and the purchasing of the costumes will be activated. Functional, practical, and fashionable costumes for disabled persons will attract not only disabled persons but also men of peculiar figures and elderly people, and may be a means to enter into the niche market.

The limi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act that only disabled females living in Seoul City were the objects of this study. As such, the author wishes that future studies would be expanded to disabled men and children and factors other than those touched in this study.

여성 신체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 기초 연구

-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인 여성을 중심으로 -

이현정* · 정삼호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약 145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38.6%에 해당하는 약 47만 명이 여성 장애인이다(보건복지부, 2000). 지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맹아, 농아와 같은 감각 장애나 언어 장애를 제외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유형별 비율로 볼 때 전체장애인의 58.3% 정도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에서 기능성은 단순히 물리적·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착용감이 좋고 입고 벗기가 쉬우며, 용변 시 편하다는 편의성과 활동성을 말한다. 기능성 의상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해소는 물론 신체의 비례나 형태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생긴 부정적 바디이미지의 감소, 원만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인구가 증가되고,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기성복을 주로 사용하고 모든 산업관련 제품 개발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여성 지체장애인들의 기성복에 대한 의복 만족도, 의복구매행동, 기능성 의복에 대한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기능성 의복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여성 지체 장애인 및 기능성 의복의 실태 분석 및 문제 선정, 이론적 방향을 모색하였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자료 분석에 219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만족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장애가 심할수록 기능성 의복을 필요로 했다. 둘째, 의복만족도와 치수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에서 길이와 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과 일치하였다. 셋째, 기능성 의복에 대한 요구도에서 활동성, 편의성, 기능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기성복 브랜드와 온라인상의 패션사이트의 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는 장애인 의상이 상품화되는 기틀이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의상에 대해 패션의류 개념이나 의류사업 개념이 도입되어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행에 맞는 의상은 장애인 뿐 아니라 체형이 특이한 사람이나 노인들까지도 소비자로서 흡수하여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새로운 의미의 market share로 기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체 장애인 남성과 아동에 대한 확대 연구와 다른 요인을 포함시킨 관계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